



김종철 경찰청장 직대, 취임 첫날 제주 현장 행보

조문·사건현장 점검… “신뢰 임계점… 유족에 사과”
새 지휘부 회의서 “경찰이 부족했다” 대국민 반성문
김병찬 신임 제주청장 “신뢰 회복·안전 제주 만들 것”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제주를 찾았다. 제주 실종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 직무대행은 3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현장 행보로 제주를 찾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제주 실종사건) 부실 대응의 원인을 현장에서 짚어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제주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휘부 회의에서도 말한 것처럼 작금의 상황이 경찰 과실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순히 말로 ‘잘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지 않겠다. 실천과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를 받겠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의 경찰 지휘부를 한데 모아 ‘경찰이 부족했습니다.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회의를 열어 ‘경찰현장’을 낭독하며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했다.

이후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 등과 함께 60대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족에게)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유가족으로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대 여성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고도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과 언론 앞에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실종 시스템 허점 개선 방안에 대해선 그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수사 쇄신 대책 지시를 해두었다. 실종 사건이 접수 시부터 수색하고 수사하고 종결하는 전 과정에 걸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며 “내일(4일) 실종수사 쇄신 대책을 직접 주재해 회의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겠다”

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후 30대 여성 실종 사망자가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아자수능장을 방문해 초동 대응과 수색 과정 등을 살펴봤다. 이어 제주경찰청에서 실종사건 대응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 받았다.

김병찬 제주청장도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업무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치안에 대해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은 촘촘하게 개선하겠다”며 “국민들로부터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 회복과 안전한 제주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과 함께 3일 제주시 장례식장에 마련된 60대 실종 사망자의 빈소에 들어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추진 AI데이터센터, 환경파괴 우려”

JDC, 2028년 준공 목표 추진

민노총, 메가특구법 폐기 촉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AI데이터센터’가 고 용량출 효과는 적은 반면 환경파괴가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JDC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제주시 월평동 일대에 26만평 규모의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곳에 AI데이터센터와 IT기업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으로, 약 40MW(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이 제정된다면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에 힘입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제

주에 AI데이터센터까지 들어선다면 피해는 온전히 도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에 추진되는 AI데이터센터는 제주 전체 가구의 26%에 달하는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며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센터가 내놓는 열을 식히고자 막대한 상수도를 끌어다 쓰면서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 8개 유인섬 인구 3551명…1년 새 2.3%↓
사업체 수 1069개… 숙박·음식점업이 42.8% 차지

제주지역 8개 유인섬의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또 이들 유인섬 소재 사업체 10곳 중 4곳은 숙박 및 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의 ‘호남·제주지역 유인섬의 사업체·유동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8개 유인섬 인구는 3551명으로, 전년보다 2.3%(85명) 감소했다.

8개 유인섬의 사업체 수는 모두 1069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457개로 42.8%를 차지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69개(15.8%), 농업과 임업·어업 154개(14.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51개(14.1%), 부동산업 65개(6.1%) 등의 순이었다.

이들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모두 630명, 매출액은 1538억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분야는 농업과 임업·어업으로 각각 195명, 3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142명, 3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종사자 수 3위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12명), 4위는 숙박 및 음식점업(106명)이었다. 매출액 3위는 숙박 및 음식점업(320억원), 4위는 도매 및 소매업(208억원)이 차지했다.

도내 유인섬의 일평균 유동인구는 우도가 1만14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주자도 8084명, 상주자도 5470명 순이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사라진 마을, 다시 인정을”… 법원은 각하

다끄네마을회, 용담2동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제주지법 “마을회 인정해 줄 법령상 근거 없어”

제주국제공항 확장으로 주민들이 떠나면서 사라진 마을을 다시 마을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최근 다끄네마을회가 제주시 용담2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마을인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다끄네(닥그네)마을은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해 ‘수근동’이라 불렀던 마을로, 한때 170여 가구·700여 명이 생활하던 터전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제주공항 확장 공사로 인한 피해로 주민들이 이주하며 마을이 사라졌다. 이후 옛 다끄네 마을을 더 인구에 옛 주민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 모여 살게 됐고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끄네마을회는 이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단체로, 제주도 조례에 따른 통·행정 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지위를 인정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마을회는 지난 2024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마친 후 용담2동에 ‘마을회 및 자생단체로 신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용담2동은 현재 마을회 등록 요건에 대한 법이나 조례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조례에 따라 1개의 통을 구성하기 위해 최소 60가구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불복한 마을회는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신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도 “피고의 회신은 원고가 마을회 요건을 물어본 것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제주시를 통해 회신한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며 “또 신청에 따라 마을회를 인정해 줄 어떠한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피고의 회신은 그 자체로 원고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소정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